

중국은 왜 26층 '돼지 아파트'를 지었을까?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경제 이야기

이주량 지음



"1만 년의 농경기간 동안에도 지금까지 식량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것은 불과 100년이 되지 않는다.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는 99%는 배고픔의 시간이었다고, 풍요의 시간은 겨우 1%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1%의 해피타임은 농업 과학기술과 인프라 덕택이다."

1만 년 전부터 농사를 시작한 인류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자기 노동력과 시간의 90% 이상을 농업에 투자해야 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트랙터와 농약, 질소 비료가 발명되며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1940년대 미국 농학자 노먼 볼로그 박사에 의해 개발된 밀 품종은 전세계 10억 명의 굶주림을 해결한 '녹색 혁명'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쌀과 축산물, 과일을 소비하면서도 정작 농업의 근원과 글로벌한 유통구조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농업 문맹(文盲)'이나 다름없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 연구위원은 신간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경제 이야기' 프롤로그에서 "현재 인류는 역사상 유일하게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싸게 먹고, 가장 멀리에서 가져다 먹는 행운타임을 누리고 있다"면서 "농업 발전에는 국민적 동의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올바른 합의를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부제 '기아와 미식 사이, 급변하는 세계 식량의 미래'를 붙인 신간은 1장 '굶주림과의 투쟁, 식량에서 산



아일랜드 더블린거리에 세워진 '대기근'(Great Famine) 추모 조형물.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업이 되기까지'부터 10장 '우리가 모르는 K-농업의 잠재력'까지 10개 장(場)으로 구성된다. 전세계 곡물의 80%를 교역하는 4대 곡물 메이저 기업들 비릇해 싱가포르의 '30 by 30' 식량안보 정책, 한국 '통일벼' 개발 과정 등 다채로운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중국이 후베이성에 건설한 스마트 축산 기반의 '26층 돼지 아파트'가 이채롭다. 전문성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를 겪은 후 외부 요인과 완전 차단해 첨단화·무인화한 미래지향적 '메가 팜'(대형 농장)이다.

19세기 초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감자 역병'(마름병)으로 인해 2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했다. '영국의 식민지 착취와 단일작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원인이었다. 저자는 생물다양성 급감과 종자 획일성에 의해 미래에 닥칠 농업의 피해를 경고한다.

"대자연이 언제 그 대가를 요구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획일화와 생태적 안정을 위한 다양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저자는 '지금과 같은 농업과 삶의 방식을 지속하려면' 평균 1.6개의 지구가 필요한데, 한국은 최소 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이 당면한 농업문제를 살펴보면 농지문제와 식량자급 등에 대해 명쾌하게 제언을 한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 K-식품산업의 잠재력을 짚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한국 농업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한국 농업의 구조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업의 본질과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공유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농업 선진국이다." <세이지·2만1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우리 몸을 만드는 원자의 역사=인간을 생존하게 만드는 '생명'이란 어디에서 기원했으며,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바로 '원자'로 귀결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요소인 원자에 초점을 맞춰 어찌 먹은 음식이 우리 몸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박병에서 바위투성이 지구까지의 변천사 등을 살펴본다. 25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의 역할과 형성 등을 들여다본다. <까지·2만3000원>

▲트럼프 청구서=재집권을 앞둔 트럼프, 우리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그의 정책 기조가 세계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선 어떤 변화가 관측될지, 주한미군 철수론이나 한국 자체 핵무장론, 최근 언급되고 있는 트럼프-김정은의 회담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다. 트럼프 안보 참모인 플레드 플라이츠를 비롯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국가 안보 보좌관인 존 볼턴 등의 심층 인터뷰를 실었다. <에티피컬·1만9000원>

▲평화의 경제적 결과=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베르사유 조약의 문제점을 알린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협상 결과가 이 조약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케인스는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교류가 단절된 국가가 재차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케인스의 이론은 이해관계를 앞세우던 정치인들로 인해 좌초됐다. 승전국이 패전국 독일에 요구했던 징벌적 배상 등을 진단한다. <휴머니스트·2만1000원>

▲호랑이 깨우기=신체에 각인되는 트라우마와 이에 대한 근원적 치료법에 대해 설명한다. 어린시절 지독한 폭력을 경험한 저자는 자신의 의식에서 지워버렸던 어두운 기억이 불안으로 발산되는 것을 경험했다. 기억을 지워도 몸에는 각인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몸의 감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신체기반 심리치유법인 소매틱 경험요법을 개발하고 소개하고 심리-철학 등을 넘나들며 치유의 과정을 알려준다. <라이팅하우스·1만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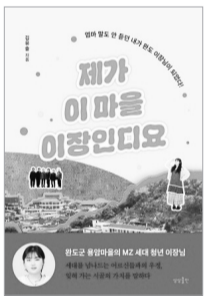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책



완도 용암리 'MZ 청년 이장'의 좌충우돌 성장기

제가 이 마을 이장인디요

김유솔 지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완도군 완도읍 용암리에는 'MZ 세대 청년 이장님'인 젊은 이장이 있다. 2022년 당시 24살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 이장이 돼 화제를 모았던 김유솔 씨다. 마을 이장이 된 지 3년차인 그가 첫 에세이 '제가 이 마을 이장인디요'를 펴냈다. 주민 평균 연령 68세, 80세대 50여 명이 살고 있는 용암리에서 그는 좌충우돌 이장 성장기와 어르신들과의 재미있는 일화를 보여준다.

사진관 사장님부터 용암 마을 이장, 청년 단체 대표까지 고향인 완도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당차게 해 나가는 저자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다. 서울에서 디자인을 준비하다 피하고 싶던 고향으로 내려와 사진관을 오픈하게 된 이야기, 전 이장의 추천으로 이장직을 맡

게 되며 겪는 좌충우돌 성장기,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청년 단체를 운영하며 마을을 살리기 위한 행동들이 다.

저자는 "이장 일은 눈을 뜨고 다니는 만큼 생기는 것"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이장은 참 신비한 직업"이라고 했다. 못 할 게 뭐 있느냐는 자신감 넘쳤던 저자는 1년만에 그만 둘 위기도 마주했지만 어르신들의 믿음을 다시 씩씩하게 일어섰다. 손녀뻘인 저자가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마주하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낯설고 어색했던 경로당에 매일 방문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가까워진다. 가로등이 끼치면 바로 해결하고 첫 눈이 오면 제설제를 얻어와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어엿한 마을 대표가 됐다.

'이장 잘하는 방법'을 검색했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술 이장'이 이장 지망생들에게 전하는 '이장 되는 팁' 등 이장을 꾸꾸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좋은 이장이 되는 방법이 담겨 있는 부분도 흥미로웠다. 저자는 마을을 생각하는 마음이 최고 스펙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완도에서 생활하는 저자의 모습은 물론 어르신들의 모습과 손수 만든 음식들,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사진들이 담겨 보는 재미가 있다. 저자는 "완도에 와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르신들'이라며 "그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책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찾느라 즐거워하신다.

사진관 사장님, 마을 이장, 청년 단체 대표까지 어쩌면 그의 삶은 서울에서보다 더 치열하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그는 완도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 떠나지 않았고, 서울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 완도에 사는 게 즐겁고 앞으로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을을 사랑하는 그는 "멋진 경관을 가진 용암리는 내가 위안을 느끼는 마을이고, 마을 땀나무 밑에서 곁눈하는 것을 꾸꾸며 나이 들어서도 지금의 용암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고 싶다"고 말한다.

<상상출판·1만6800원> /양재희 기자 heestory@

▲내친구 너도=기분이 좋아지는 한마디 '노을자', 좋아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간질간질', 만들기 마법사 보라 옆에서 노래를 '흥얼흥얼', 반복되는 말놀이를 통해 우리 말맛과 자모음의 맵시를 드러낸다. 어린이들이 좋아 할 만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통해 나눔의 기쁨이라는 주제 의식과 우리 말의 용례를 동시에 알려준다. <파란자전거·1만6000원>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천 년 집사'가 되어야 한다. 고양이를 구하고 평화를 가져올 특별한 집사의 탄생을 따라간다. 죽어가던 새끼 고양이를 살리려다 고양이의 언

어를 이해하게 된 경찰 고덕은 그들의 세계에서 고양이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소문에 휩싸인다. 그 능력을 탐하는 악당들과 서스펜스가 펼쳐진다. <래빗홀·1만6800원>

▲늑일 수 있다면=빙하기 속 인간들이 얼음 속에 관처럼 갇혀 온 지구가 '공동묘지'가 된 상황. 얼음 인간들은 서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으로 썩 썩 얼어 있다. 과연 그들이 깨어나는 날이 올까? 나를 괴롭혔거나 원망했던, 내가 사랑했거나 증오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 깨우고 누구 얼려놓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다. <현대문학·1만4000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